



기업 경영 및 환경 평가의 중장기 변화 : IMD 국가경쟁력보고서¹⁾의 설문을 중심으로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요약

- 본고는 IMD 국가경쟁력보고서의 설문점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함
 - 2020년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4개 분야(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에 대해서 총 163가지 통계 자료와 92가지의 설문 결과를 기초로 부문별 순위 및 종합 순위를 발표하였음
 - 설문 조사의 경우 주관적인 판단에 대한 지표 산출을 위해 각국의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10점 척도의 설문을 실시하고 있음
 - 경쟁력 보고서에 포함된 92개 설문 중 기업과 연관성이 있는 48개 설문을 '기업 경영', '노동 인재', '금융 투자', '제도 환경'의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점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논의하고자 함
- 설문 점수가 개선된 영역과 악화된 영역의 키워드를 종합하면 기술 중심의 신산업이 성장할 환경은 개선되고 기존 산업의 생존 환경은 악화되는 구조적 변화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음
 - '기업 경영' 분야의 경우 개선된 설문들은 '경영층의 능력'과 'IT 기술'로 대변되는 반면, 점수가 하락한 설문들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음
 - '노동 인재' 분야의 경우 점수가 상승한 영역은 '전문 인력'으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으며, 점수가 하락한 설문은 '일반 근로자'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음
 - '금융 투자' 분야에 대한 평가는 모든 설문에서 점수가 개선되었으며, 순위까지 상승한 분야는 '자본시장'과 '금융 지식'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임
 - '제도 환경' 영역에서는 개선된 설문 내용은 '창업', '과학', '개방'으로 요약될 수 있는 반면, 점수가 하락한 설문은 '정부 개입'의 비효율성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음
- 보험산업도 상품 개발, 마케팅, 자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기술 중심의 신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제4차 산업 혁명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및 적용, 기술기업의 창업과 연계된 다양한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고, 온라인 채널의 활용성,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품 개발 여건 등이 크게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임

1)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nternational institute of Management & Development)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의미하며 이를 통상적으로 IMD 국가경쟁력보고서라고 칭함



1. 국가경쟁력에 대한 평가 보고서

- IMD 국가경쟁력보고서는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 사이의 경쟁력 순위를 파악하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매년 IMD 국가경쟁력보고서가 발간되면, 이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고 민관합동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논의함²⁾
 - 2020년 국가경쟁력 순위는 전체 23위(63개국 중), 인구 2천만 명 이상인 국가 중에는 8위(29개국 중)로 나타나 2019년 전체 28위 인구 2천만 명 이상 국가 중 11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다수의 국가(2020년 기준 63개국)를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계와 설문 조사 결과를 점수화하고 있으나, 종합 결과인 국가 간 순위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임
 - 2020년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4개 분야(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에 대해서 총 163가지 통계자료와 92가지의 설문 조사 결과를 기초로 부문별 순위 및 종합 순위를 발표하였음
 - 설문 조사의 경우 주관적인 판단에 대한 지표 산출을 위해 각국의 오피니언 리더³⁾를 대상으로 10점 척도의 설문을 실시하고 있음
- 본고는 설문 점수의 변화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경영 환경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 경쟁력 보고서에 포함된 92개 설문조사 중 기업, 노동, 기술 그리고 기업 관련 제도 등과 관련된 48개 설문 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점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고자 함
 - 92개 설문조사 중 2020년과 2010년에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되어진 조사는 80개이며, 이 중 경영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⁴⁾되어 있다고 판단된 설문은 총 48개임
 - 보험회사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설문 평가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연관지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기획재정부(2020. 6. 16), 「2020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3) 각국에 대한 설문조사는 해당 국가의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 간 상대 비교의 타당성에 논란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활용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조사 비교 방법이라 할 수 있음

4) 삶의 질, 공해, 초·중등교육, 부패 등 사회 문제 등을 포괄하는 다수의 질문이 있으나, 논의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질문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음



2. 2010년 vs 2020년 우리나라 경쟁력 순위 비교

- IMD 국가경쟁력 순위의 과거 추이를 볼 때 2020년과 2010년은 다른 해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순위를 보인 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 순위와 경영 효율성 분야의 경우 거의 동등한 순위를 기록했음(〈표 1〉 참조)
 -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가장 높았던 경우가 22위(2011, 12, 13년)였던 점을 고려하면, 2020년과 2010년의 23위는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최근 국가경쟁력 순위가 낮았던 경우는 2006년에 32위, 2008년에 31위, 2016·2017년에 29위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2020년과 2010년의 분야별 순위를 비교하면, 2020년에는 인프라 분야에서 2010년에는 경제 활력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였으며, 정부 효율성과 기업 효율성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하는 만큼 4개 분야 중 '기업 효율성' 분야의 설문이 주로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다른 분야의 경우에도 기업 경영과 연관된 제도나 IT 환경 등에 대한 설문을 포함하였음

〈표 1〉 IMD 국가경쟁력 순위 비교(2020년 vs 2010년)

구분	2020년	2010년
전체 순위	23	23
경제 활력	27	21
정부 효율성	28	26
기업 효율성	28	27
인프라	16	20

자료: IM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Yearbook(2010), (2020)



3. 기업 경영 관련 설문 점수의 변화

- 본장은 48개 설문을 '기업 경영', '노동 인력', '금융 투자', '제도 환경'의 4개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영역에서 점수가 상승한 설문과 하락한 설문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제시하는 형태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 2020년 점수는 2010년에 비해 분석 대상 48개 설문 중 34개 설문에서 상승했으며, 3개 설문에서 보합,⁵⁾ 11개 설문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점수도 일반적으로 오르는 경향을 보여 점수는 상승했으나 순위는 하락한 경우가 34개 설

5) 점수의 변화가 10점 척도 기준에서 절대값 0.1 이하인 경우 상승도 하락도 아닌 보합세로 판단하였음

문 중 18개로 나타났으며, 점수가 하락한 11개 설문의 경우는 모두 순위도 하락하였음

- 본장의 키워드 도출은 설문 점수와 순위가 모두 상승한 16개 설문 내용과 설문 점수와 순위가 모두 하락한 11개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

○ 기업 경영 분야의 경우 개선된 설문들은 ‘경영층의 능력’과 ‘IT 기술’로 대변되는 반면, 점수가 하락한 설문들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음(표 2) 참조)

- 점수가 상승한 분야는 주로 고위 관리자의 능력과 관련되거나 IT기술과 관련된 설문이었으며, 기업의 유연성에 대한 평가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점수가 하락한 분야는 기업가 정신,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과 같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연관된 부분임
 - 다만, 지속가능경영이나 고객만족의 우선순위는 점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위권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표 2〉 ‘기업 경영’ 관련 설문 점수 변화(2020년 vs 2010년)

구분	기업 경영	2020년	2010년
상승	기업의 유연성	6.82(13)	5.63(32)
	고위 관리자의 해외 경험	5.51(39)	4.43(48)
	고위 관리자의 충분성	5.27(42)	4.19(49)
	정보통신 기술의 수준	9.12(10)	8.57(15)
	디지털기술에의 접근성	7.64(18)	7.16(34)
	순위 하락	경영 교육의 충분성	4.70(43)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5.14(43)
		이사회 효율성	4.35(51)
		산학 간 지식공유 및 협력	5.18(24)
		적절한 회계 감사	6.00(46)
	보합	중소기업의 효율성	4.20(52)
	하락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우선순위	7.67(2)
		고객 만족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정도	8.36(3)
		기업가 정신	6.54(8)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6.37(13)
		대기업의 효율성	6.88(24)

주: 괄호는 순위임

자료: IM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Yearbook(2010), (2020)

○ 노동 인재 분야의 경우 점수가 상승한 영역은 '전문 인력'으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으며, 점수가 하락한 설문은 '일반 근로자'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음(〈표 3〉 참조)

- 고급 엔지니어, 숙련 근로자, 인재 유출, 외국어 능력 등에 대한 설문 점수가 개선되어 상대적으로 전문 인력의 확보와 활용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음
- 기존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나 근로자의 일반적인 근로 의욕 등에 대한 평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인재 확보 및 관리에 대한 평가가 하락하였지만 2020년에도 63개국 중 11위로 나타나 여전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표 3〉 '노동 인재' 관련 설문 점수 변화(2020년 vs 2010년)

구분	기업 경영	2020년	2010년
상 승	고급 엔지니어의 충분성	7.24(25)	5.74(47)
	외국어 능력의 충분성	6.08(38)	4.98(39)
	숙련 근로자의 확보	5.97(31)	4.52(50)
	인재 유출의 심각성	5.46(28)	3.69(42)
	순위 하락	4.70(43)	4.58(33)
보합	-	-	-
하 락	근로자 교육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	6.84(15)	7.30(6)
	근로 의욕	5.48(43)	5.87(28)
	인재 확보 및 관리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	7.81(11)	8.26(1)

주: 괄호는 순위임

자료: IM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Yearbook(2010), (2020)

○ 금융 투자 분야에 대한 평가는 모든 설문에서 점수가 개선되었으며, 순위까지 상승한 분야는 '자본시장'과 '금융 지식'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임(〈표 4〉 참조)

-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자금 조달의 경우 점수뿐 아니라 순위도 상승했으며, 금융 지식에 대한 접근성도 점수, 순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 투자 분야의 경우 점수가 하락한 설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평가가 개선되는 추이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음

〈표 4〉 ‘금융 투자’ 관련 설문 점수 변화(2020년 vs 2010년)

구분	기업 경영	2020년	2010년
상 승	자본 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6.00(25)	5.19(30)
	금융 지식의 접근성	6.59(28)	5.14(48)
	자본 시장에서의 접근성	6.82(29)	5.91(39)
	기술 개발을 위한 펀딩	5.78(38)	4.95(30)
	금융 서비스의 기업 활동 지원	5.30(49)	4.79(38)
	금융 관련 제도의 준수	6.19(47)	4.48(37)
	주주의 권리 보장	5.46(55)	4.97(49)
	신용 공급의 충분성	5.51(44)	4.65(33)
	기업부채의 기업활동 저해 정도	4.49(55)	4.15(44)
	벤처캐피탈의 활용성	4.84(41)	3.74(37)
보합	-	-	-
하락	-	-	-

주: 괄호는 순위임

자료: IM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Yearbook(2010), (2020)

○ 제도 환경 영역에서는 개선된 설문 내용은 ‘창업’, ‘과학’, ‘개방’으로 요약될 수 있는 반면, 점수가 하락한 설문은 ‘정부 개입’의 비효율성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음(〈표 5〉 참조)

- 과학 연구, 해외 투자 및 시장 참여의 개방성, 창업과 관련된 제도 등에서 점수가 개선된 반면, 정부보조금, 정부지분, 환경관련 제도 등에 따른 기업 활동 비효율성은 커진 것으로 평가되었음

〈표 5〉 ‘제도 환경’ 관련 설문 점수 변화(2020년 vs 2010년)

구분	기업 경영	2020년	2010년
상 승	과학연구관련 제도	6.03(31)	5.00(32)
	해외 투자자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5.73(41)	5.07(43)
	공공부문 계약의 해외개방도	5.42(42)	4.75(47)
	창업관련 제도의 효율성	6.22(41)	4.15(48)
	지적재산권의 적절한 보장	6.35(38)	5.74(32)
	자본비용의 기업활동 저해 정도	5.46(40)	4.92(25)
	보호무역주의의 기업활동 저해 정도	4.62(51)	4.39(49)
	노동관련 제도의 경영 활동 저해 정도	3.81(55)	3.70(44)
	해외투자자의 국내경영 참여의 원활성	6.39(42)	6.09(40)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제도적 환경	5.92(44)	6.00(33)
보합	공정경쟁제도의 공정경쟁 보장 정도	5.40(40)	5.35(30)
하락	정부보조금의 공정경쟁 저해 정도	4.67(49)	4.84(34)
	정부지분의 기업활동 저해 정도	4.49(55)	5.44(31)
	환경관련제도의 기업 활동 저해 정도	5.67(43)	5.89(30)

주: 괄호는 순위임

자료: IM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Yearbook(2010), (2020)



4. 시사점

- 설문 점수가 개선된 영역과 악화된 영역의 키워드를 종합하면 기술 중심의 신산업이 성장할 환경은 개선되고 기존 산업의 생존 환경은 악화되는 구조적 변화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음
 - 설문 점수가 상승한 영역의 키워드를 종합하면 ‘전문 인력 중심의 IT기술 기업이 창업하고 자본 시장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성장해갈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설문 점수가 상승한 영역의 키워드는 경영층의 능력, IT기술, 전문 인력, 금융 지식, 자본시장, 창업, 과학, 개방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설문 점수가 하락한 영역의 키워드를 종합하면 ‘경쟁이 격화되고 환경 문제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등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근로자의 교육, 노동 환경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경영의 우선순위가 약해지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음
 - 설문 점수가 하락한 영역의 키워드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 일반 근로자, 정부 개입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2020년과 2010년 사이의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나 경영 효율성에 대한 순위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그 사이 신산업 중심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내부에서는 구조적인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보험산업도 상품 개발, 마케팅, 자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기술 중심의 신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제4차 산업 혁명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및 적용, 기술기업의 창업과 연계된 다양한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고, 온라인 채널의 활용성,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품 개발 여건 등이 크게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임